

일주문



관음종태허조사탄신다례법회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0월 13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태허조사 탄신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직지사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김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은 10월 24-25일에는 '세상을 향한 날개짓' 템플스테이와 26일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군중교구 간부불자 수련회
조계종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은 10월 9-11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군불총임원진 및 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간부불자 수련회를 개최했다.



도봉산 천축사 산신대제
서울 천축사 주지 유방 스님은 10월 26부터 11월 1일까지 국운융창 산신대제 7일 기도를 봉행한다.



29기 2급 전문지도자 과정 개강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10월 10일-12일 2급 전문지도자 과정을 실시한다.



주영은 행원이사장 국민훈장 수훈
행원문화재단 주영은 이사장은 10월 14일 2009이북도민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동백장)을 수훈했다.



2009 서울세계 차문화축제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22일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들차회인 '2009 서울 세계 차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불교아카데미 티벳불교강연
불교아카데미 전우희 이사장은 10월 24-26일 우리문화회관 수형센터에서 티벳 라포 사원 방장 라퍼켄 린보체 스님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신희섭 교수 미국과학술원 회원 등록
한국과학기술원(KIST) 신희섭(제1호 국가과학자) 신경과학센터장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술원(NAS) 외국인회원으로 등록했다.



국선도법사단회의 신종플루 강의
국선도법사단회의 임경택 의장(목포대 정외과 교수)은 10월 22일 국선도 광화문수련원에서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를 강연한다.

“나눔을 위한 소통 5대영역 가동할 것”

설립 15주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한 분의 기증으로 수십 명의 고통 받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명나눔에 동참하세요.”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을 비롯한 의료복지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일면 스님은 “해탈장 스님이 생명나눔을 설립한 이래 본부는 생명나눔실천운동이 자리잡는 데 힘을 쏟았고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헌혈, 조혈모세포, 조직기증 운동에 힘을 기울여왔다”며 “2009년을 설립이후 15년 동안의 사업을 새롭게 정리하고 평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해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은 그동안 △장기기증 결

연 사업 △헌혈 은행 △환자 지원사업 △장기 및 시신기증자 천도제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2009년 9월말 까지 장기기증희망자는 2만4258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는 1만6560명이 등록

되었다. 특히 조혈모세포기증은 대한 적십자사 다음으로 많은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명나눔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서약운동과 의료발전을 위한 시신기증 결연 사업 및 연간 2억7000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환자 치료비·수술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일면 스님은 “2014년 까지 향후 5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성과를 별 계획”이라며 “‘생명나눔을 위한 소통’이라는 큰 주제를 세우고 5가지 영역을 만들어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과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나눔은 △대중 △환자 △정서 △기관 △온라인의 다섯 영역에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중과의 소통은 장기 기증 홍보 및 교육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위한 캠페인 진행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이

런 학생들에게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환자와의 소통은 정기적인 모금을 통한 환자 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헌혈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서와의 소통에서는 희망 길 걷기대회, 자선음악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 사업을 주로 펼칠 예정이다. 기관과의 소통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자치부, 국립장기기식관리센터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홍보한다.

일면 스님은 “불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동참했으면 좋겠고, 특히 젊은이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환자를 도와 환자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하자”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일불법왕문도의 날 조사전 기공식 봉행



10월 10일 열린 일불법왕문도의 날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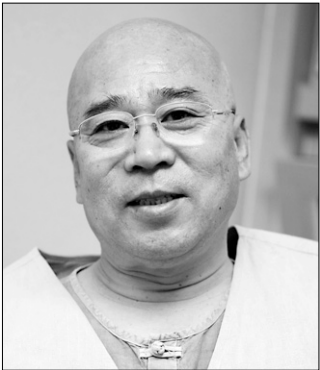
일불법왕문도회가 주최하고 일불법왕종이 주관하는 일불법왕문도의 날 기념식 및 일불법왕 조사전 기공식 대법회가 10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청원군 법왕정 담화정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초대법왕 일불 전서 ‘세계일화’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이날 일불법왕종은 일불 스님 박물관 겸 조사전 건립 등 업적사업을 병행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부산 대각사 경우 스님 등 100여명의 스님과 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새 콘텐츠 · 전문가양성 진력”

9월 22일 문을 연 불교IT문화원 원장 지홍 스님



지홍 스님

“IT나눔으로 불교의 자비정신을 펼치겠습니다.”

불교와 IT를 접목,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고 전문가 양성 과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불교IT문화원(원장 지홍)이 9월 22일 문을 열었다.

불교IT문화원장 지홍 스님은 “예전 한문문화권에서는 스님들은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지도자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맞았다. 하지만 스님들과 불교교계는 IT와 관련된 분야를 멀리하고 있어 관심이 절실하다”며 설립 목적을 설명했다.

지홍 스님은 “불교교계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녔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서예대전 등 공모전을 개최하고, Active불화와 E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의 IT화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각 사찰 및 행사에 전문가를 파견해 승가 내의 디지털 전문가 양성 및 컨설팅에도 많은 노력을 기

울 것이다”고 밝혔다. 불교IT문화원은 불교IT콘텐츠와 더불어 IT나눔으로 불교계 저변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IT나눔은 ‘한 가정 한 PC운동’으로 10월 말부터 각계에서 중고컴퓨터를 지원받아 다문화 가정 및 각 사찰 신도자녀 중 PC가 없는 가정에 보급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인터넷 교육 등 소양교육도 진행한다. 불교IT문화원은 IT나눔에 대해 ‘임의단체’로 신청, 향후 사단법인화도 추진 중이다.

지홍 스님은 “현재 사회는 ‘악플’ 등 정서·정신적으로 황폐화된 인터넷 세대가 커가고 있다. IT나눔 속의 불멸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불교문화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02)739-9777 노덕현 기자

東大출신 연예인들 10억 모금 약속

이덕화, 최민식, 이효정, 이경실 등 기부금 약속



2009 홀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동국대 출신 연예인들, 맨 앞이 이덕화씨

동국대 연극학과 출신 연예인들이 모금 발전을 위해 10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기부키로 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0월 10일 동국대에서 열린 ‘동문초청 2009 홀커밍데이’에 참석한 이효정, 이덕화,

최민식, 채시라, 이경실, 조여정 등 동문 연예인들이 이날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을 내년까지 조성해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연극학과 동문회장인 이효정 씨는 “모교의 건학103주년 및 연극학과 창설 50주년을 맞아 학교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을 동문회 차원에서 모금하기로 했다”며 “2010년 12월까지 기금을 조성해 학교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홀커밍데이에는 이연택 총동창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홍영표 국회의원 등 1300여 동문이 참석해 145억원의 발전기금이 모였다. 이 외에도 각단과대별로 동문들의 후원금이 줄어들었다. 불교대학(원)은 석립동문회를 비롯한 동립동문회, 덕산장학회, 불교대학동문회, 불교대학원총동문회, 불교경영과최고위과정 총동문회 등에서 1000여 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조동섭 기자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불광출판사



불광출판사 창립 30돌 기념법회에 참석한 원택, 지홍, 상훈, 현각, 지현 스님(왼쪽부터)

불광출판사 창립 30주년 및 월간 <불광> 35주년을 기념하고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법회가 10월 16일 서울 견지동 불광출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불교출판문화협회장)은 “광덕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출판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필자와 애독자를 비롯해 성원해 주신 사부대중의 사랑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도서와 인문·IT분야에도 좋은 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전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원택 스님과 불광법회 이형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제7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염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육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9년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8월 2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조재) : 양력 10월 11일 (음, 8월 23일)
- 3재 : 양력 10월 25일 (음, 9월 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2일 (음, 10월 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당)
 -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랑, 과자, 분유(우유) 등
 -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육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 시는게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에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암장 02)3391-8523 / 011-9002-8523

Advertisement for the 7th Jachon Temple fetal abortion/ miscarriage memorial service,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seated Buddha figure holding a child.